



보도자료

## GE헬스케어, CT기술의 혁명적 진화, 세계 최초 올인원 “레볼루션 CT”출시

- 피폭량 저감과 진단의 정확성,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는 혁신 CT기술 모두 보유
- 움직이는 심장을 0.28초만에 촬영, 심혈관 질환 진단의 새로운 장 열어
- 기존 CT보다 4배 넓어진 촬영범위로 응급상황의 뇌졸중 환자도 CT로 진단 가능해질 것

(2014년 4월 14일, 서울) GE헬스케어 코리아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해상 이미지 획득을 통한 진단 정확성, 빠른 촬영 속도, 기존CT보다 4배 확대된 촬영 범위 등 현존하는 모든 혁신 CT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초의 ‘올인원’ CT 시스템 ‘레볼루션 CT(Revolution CT)’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심 뇌혈관 질환 조기 진단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GE헬스케어가 개발한 레볼루션 CT(국내허가 취득 전 제품)는 0.28초의 빠른 회전 속도의 스캐너를 통해 심장과 같이 빨리 움직이는 장기에도 정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촬영 범위가 기존 4cm에서 16cm로 확대되어 여러 차례 촬영이 필요했던 넓은 부위도 한번에 전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선명한 이미지 획득은 물론 피폭량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동시에 구현한다. GE의 레볼루션 CT는 하나의 장비에 기존의 모든 한계를 한 단계 더 극복한 기술을 담은 세계 최초의 ‘올인원 시스템’으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촬영 횟수 최소화를 통해 선량을 저감하며 진단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CT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에 서구화된 식습관이 보편화되고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심혈관 및 뇌졸중 등 만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레볼루션 CT의 신속한 스캔 및 촬영 범위 확장 기술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심장을 한번의 빠른 촬영으로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 심혈관 환자는 물론 급성 뇌졸중 환자와 같이 촬영 시 어려움 있는 뇌졸중환자나 숨을 참기 어려운 소아 환자의 경우에도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레볼루션 CT는 최첨단 저선량 기술인 에이서-브이(ASiR-V) (국내허가 취득 전 제썬)를 탑재해 선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했다. 에이서-브이는 GE의 차세대 모델기반 반복 재구성(Model-Based Iterative Reconstruction)기술로써, GE헬스케어의 기존 저선량 기술 에이서(ASiR)의 빠른 속도를 가능케 하는 기술과 반복 재구성 솔루션 베오(Veo)의 장점인 낮은 선량과 높은 대조도 분해성능(Low Contrast Detectability)을 동시에 구현해 CT의 차세대 저선량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다. 젬스톤 클라리티 디텍터(Gemstone Clarity detector)를 탑재해 촬영 횟수를 줄일 뿐 아니라 에이서-브이의 저선량 기술로 환자의 안전 역시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이 밖에도, 촬영 공간이 넓고 편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소음도 절감돼 환자에게 보다 편안한 진료 환경을 제공한다.

이날 한국에서 레볼루션 CT를 소개하기 위해 방한한 스티브 그레이(Steve Gray) 사장은 “GE헬스케어의 레볼루션 CT는 진단 정확성을 높이고 환자의 편의와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기존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던 심혈관, 뇌졸중, 간 질환자를 위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장비”라며, “GE헬스케어는 레볼루션 CT의 혁신 기술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한 단계 진보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인류 건강에 필요한 의료기기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E헬스케어 코리아 시아 무사비(Sia Moussavi) 사장은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서구화된 식습관 및 편의시설 증대로 인한 운동부족으로 심뇌혈관 질환 등이 늘고 있다”고 진단하고, “현존하는 혁신 기술이 모두 집약된 레볼루션 CT의 도입으로 수준 높은 국내 의료진의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을 도와 국내 급성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만성질환의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가능케 해 국민건강 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E헬스케어는 1998년 RSNA(북미방사선학회)에서 세계 최초로 멀티 디텍터 CT LightSpeed QX/i를 소개하고, 이어서 2004년 LightSpeed VCT(64 슬라이스)를 선보였으며, 그 이후 고화질 영상과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장비들을 잇달아 개발했다. 이 밖에도, GE헬스케어가 개발한 디스커버리 CT750 HD (Discovery CT750 HD)는 세계 최초의 HD급 CT장비로, 베오 솔루션을 탑재해 기존 CT 대비 선량을 최대 80%까지 감소시켜 X선 노출에 민감한 소아환자나 젊은 여성들의 진단을 최적화하는 등 CT의 진화를 선도해 왔다.

###

▲ GE헬스케어에 대하여

GE헬스케어는 전세계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비용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혁



신적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GE는 역량 있는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난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GE헬스케어는 의료영상, 소프트웨어 및 IT, 환자 모니터링 및 진단에서부터 의약품 개발, 바이오 약품 제조 기술, 그리고 성과 개선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의료진들이 환자들에게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GE헬스케어의 ‘헬씨메지네이션(healthymagination)’에 대하여**

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GE가 약속한 60억 달러 공약의 일환인 헬씨메지네이션 인증 제품은 지금까지 2억3천4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헬씨메지네이션은 확실하고 활용도 높은 정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그들이 스스로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 많은 정보는 <http://www.healthymagination.com/>에서 얻을 수 있다.

# # #

**문의**

- |           |                     |
|-----------|---------------------|
| GE헬스케어코리아 | 윤명옥 이사 02-6201-3302 |
|           | 한영화 차장 02-6201-3318 |
| 뉴스커뮤니케이션스 | 최은정 팀장 02-6323-5040 |
|           | 박도윤 대리 02-6323-5074 |
|           | 홍여원 사원 02-6323-5082 |